

## 시키보 - 담배 냄새의 방취·소취 가공 개발

시키보는 2005년 1월에 담배 냄새에 대한 가공 “니오데드”를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가공은 나노테크놀러지(nano-technology)에 의한 “나노스타일” 시리즈에 들어 있으며, 2006년 춘하절용 상품부터 코트, 블라우스, 드레스 셔츠 등의 소재로 판매하고 있다.

시키보는 담배 냄새의 소취(消臭)뿐만 아니라 방취(防臭)도 고려하고 있는 점이 새롭다. 1995년경에, 섬유 메이커들이 연달아 개발한 담배 소취 섬유는 담배 냄새의 주성분인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암모니아(ammonia), 초산(acetic acid), 피리딘(pyridine), 황화수소(hydrogen sulfide)의 냄새를 중점적으로 소취, 즉 냄새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러나 담배 냄새의 주성분 이외의 냄새 성분이 남아있어, 코로 직접 맡는 냄새로는 냄새가 없어졌다는 효과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담배의 연기 성분은 2,000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므로, 모든 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았다.

시키보는 나노테크로 섬유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 방취, 즉 담배 냄새가 옷에 묻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나도록 하면서 천의 표면에 묻은 냄새 성분도 분해하여 소취 작용을 하도록 하는, 독자 배합의 소취제를 채용함으로써 주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도 분해하는 범용성이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섬유에 피막을 만들어도 천의 촉감은 거의 변하지 않으며 세탁 내구성이 좋다.

천의 가격은 레귤러 제품보다도 20%정도 비싸다. 순면은 물론 폴리에스터 혼방 등의 복합 소재의 가공도 가능하다. 판매 목표는 초년도에는 10만m로

5천만엔, 3년 후에는 60만m로 3억엔을 잡고 있다. 직물은 시키보고난에서 주로 가공하는데, 2년째부터는 인도네시아의 방직·편성·가공 자회사인 멜텍스(Mertex)에서 가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니트는 초년도부터 멜텍스에서 가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예정이다. ♣